

# 장애인 1인가구의 형성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

임상욱\*·전지혜\*\*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support plans

Sangwook Lim\*·Jihye Jeon\*\*

**요약** :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장애인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장애인 정책이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로 주제어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 자로는 서울에서 2년 이상 1인가구 생활을 하는 장애인 9명을 선정하여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4개의 상위범주, 12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장애인 1인가구는 자발적 선택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족의 장애인 이해 부족, 적절한 돌봄의 부재 등 가족관계와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인가구 형성 이후 이들은 사회적 인식 부족, 접근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립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가족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자립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인가구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종합주거와 지원체계, 장애인 연금 확대, 지역 내 인식개선, 가족 역할의 재구성, 긴급상황 시 대응책 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주거, 1인가구, 자립생활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forming a single-person household with a disability and to suggest a social support plan. This study used the subject analysis method as a qualitative study, and nine participants with disabilities who lived in a single household for more than two year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research. In some cases, the formation of a single-person household with a disability appeared as a voluntary choice or inevitable choices due to family relations and circumstances such a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and lack of proper care. They were found to b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independent living due to lack of social awareness, accessibility problems, and economic difficulties. Ironically, the satisfaction of life was high in enjoying freedom from the family, and even if there were difficulties in independent liv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licy for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nd a comprehensive housing and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pansion of pensions for the disabled, improvement of awareness in the region, reconstruction of family roles, and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in an emergency.

**KeyWords** : Housing for the disabled, single-person household, independent living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Doctoral Stud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제1저자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Associate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ikwvjh@hanmail.net)

## I. 서론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더 이상 소수 가구가 아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9.0%에서 2017년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45년에는 36.3%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미 4가구당 1가구 이상이 1인가구이며, 홀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트렌드와 소비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붕괴와 가족 개념 변화 등으로 한국의 가구 규모 변화는 대가족에서 소가족화로 대표되다가 이제는 1인가구의 증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 가정이 이혼, 비혼, 별거, 자립 같은 사유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지방이전 등으로 분리된 독립생활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는 가구동향의 대세가 되고 있다.

장애인 1인가구도 비장애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014년 24.3%, 2017년 26.4%로 증가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7.2%로 확인돼, 비장애인 1인 가구 비율 31.7%(통계청, 2020)와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기준이 중증장애인 가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인가구로 분리하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다소 1인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강현욱, 2017).

그러나 우리 사회는 1인가구 대상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인 1인가구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1

인가구보다 부모와 자녀로 형성된 4인가구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었고, 경제정책이나 주거정책 등에서도 4인가구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변화와 달리 사회보장체제나 복지제도는 전형적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약한 1인 가구의 특성과 복지욕구에는 최근에 와서야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실시한 2014년 <1인가구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가 그 초기 연구에 해당하며, 최근에 실시된 유진성(2020)의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여성화, 고령화, 빈곤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4배 많았고, 중졸이 대학원졸보다 2배 많았다. 미취업자가 취업자의 1.7배를 넘었고, 월세 비중이 전세나 자가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사회의 빈곤화와 소득불평등의 악화로 이어진다고도 하였다(유진성, 2020).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전 사회적인 1인가구의 취약성을 논하면서도, 장애인 1인가구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장애의 문제가 소수자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1인가구 통계에서도 장애 유무 변수를 다루지 않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증가는 단절과 고립에 따른 개인적 위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안정성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라도 사회정책도 이에 발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이여봉, 2017), 사회보장 시스템의 변화나 1인가구의 취약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를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연구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장애 분야 연구자들도 전체 가구 동향과 함께 장애인 1인가구의 특성과 취약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장애인 탈시설 또는 자립지원정책의 동향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을 연구하거나 탈시설의 과정 속에서 1인가구가 될 때의 어려움을 연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탈시설과 자립의 과정과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장애인이 홀로 살아가는 삶에 주목하거나(김경미, 2009),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지원 연구(서종녀, 2014)가 수행되었을 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유로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나 독립한 1인 장애인 가구가 경험하는 문제 또는 어려움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이 약 8만 9천 명이고, 재가장애인은 258만 명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장애인의 욕구와 실태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서 장애인 분야는 주로 탈시설과 자립 지원으로 논의가 한정되는데, 사실 탈시설 자립 지원 연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재가장애인의 자립과 탈가족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비장애인 성인이 원가족에서 분리 독립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홀로 살아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듯이, 장애인 성인 가구의 1인가구화 현상에는 어떤 다양한 사유가 있는지 주목하고 어떠한 사회 정책적 대응과 복지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계속 강조될 것이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공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중요하며, 장애인 1인가구에게는 더욱 체계적인 지역사회 내

주거 지원과 종합적인 복지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볼 때, 장애인 1인가구의 형성 맥락과 특성,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탈시설 자립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1인가구화 과정에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탈시설 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 자립, 지역 내 관계망 형성, 주거지원, 일자리, 자기결정 등이 주요 논제라면, 재가장애인 1인가구화의 배경과 맥락은 다소 다를 것이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은 복지지원 방식이 시설지원에서 지역사회 내 지원으로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재가장애인은 부모나 가족구성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복지지원체계 욕구로 나타나는 등 양상이 다를 것이라 판단된다. 즉, 탈가족을 하는 1인 장애인 가구는 사적 가족관계에 기반을 둔 지원에서 공적 복지지원체계로의 편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장애인 1인가구의 형성과 사회적 지원방안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가장애인 1인가구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역 내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1인가구 지원방안 논의는 앞으로 탈시설 자립장애인 지원 방안과 함께 재가장애인을 포함한 통합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복지 실천과 정책상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II. 문헌고찰

### 1. 1인가구 개념과 특성

통계청(2020)에 따르면, 1인가구는 혼자서 살  
립하는 가구로 일반가구 가운데 독립적으로 취사  
와 취침 등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1인가구는 형성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가구  
와 비자발적 1인가구로 구분되며, 인구학적 특성  
에 따라 청년 1인가구, 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  
구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비  
혼 1인가구와 혼인 1인가구로 구분하기도 한다(변  
미리 외,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1인  
가구는 통계청(2020)이 정의한 개념을 사용하였으  
며,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이 기준을 적용하  
였다.

1인가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라 젊  
은 층과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20~30대 여성 1인  
가구는 취업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며, 60  
대 이상의 여성 1인가구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  
았다(장민선, 2015a). 노인 1인가구는 빈곤, 만성  
질환, 장애를 겪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소외와 고립에 처해  
있다(김유진, 2018),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구조  
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비자발  
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주  
관적 삶의 만족감은 매우 낮게 확인됐다(김선미,  
2019). 따라서 1인가구는 여성, 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비중이 높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음  
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연구 중 현재까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연구 영역은 노인과 여성, 청년 1인가구에 대  
한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노인 1인가구 대상 연구 중 김행신 외(1998)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함께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 의식 저하,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증가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상황적 특  
성에 따라 차별화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김현진 외(2000)는 단독가구에 거주하  
는 고령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임을 주장하  
였다. 김유진(2018)도 노인 1인가구는 사회적 소  
외와 고립에 처한 경우가 다른 1인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 1인가구 연구 중  
이성은 외(2012)는 저소득 주거 빈곤층 비혼여성  
1인가구 임대주택 시범사업, 안전한 주거환경 마  
련 등 서울시 거주 여성 1인가구의 종합 지원을 제  
안하였다. 장민선(2015a)도 20~30대 여성 1인가  
구의 어려움은 취업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  
고, 60대 이상 여성 1인가구는 다른 연령보다 저  
소득층의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 보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혜진(2018)은 청년 1인가  
구 삶의 연구에서 1인가구 청년은 대부분 여가시  
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다는 결과가 있  
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1인가구의 삶은  
불안, 빈곤,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2. 장애인 1인가구 선행연구 고찰

최근 장애인 1인가구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장애인 1인가구 전체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살핀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특정 취약 장애인의 사회복지 욕구나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거나,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서 자립한 장애인 경험 연구 등이 수행된 정도이다. 먼저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1인가구 고령 장애인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기본소득 보장을 제안하였고(박주영, 2018), 또한, 인구학적, 심리·건강,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독거 고령 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기초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 경제적인 자립생활기반 구축, 노후준비 지원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박주영·오혜경, 2013). 그 외에도 독거장애인의 우울감에 주목한 연구(이선형·배희숙, 2016)에서는 독거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치료 결과 우울증 척도가 감소하고,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장연식(2019)도 독거장애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하려면 노인복지의 실천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강화로 전환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1인가구화되는 탈시설장애인의 경험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김경미(2009)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장애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해 자립생활지원의 본질을 알아 보았다. 연구 결과,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체험홈은 생활시설 또는 지역사회 내 의존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체험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지수 외(2016)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지원체계의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서종녀(2014)는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더불어 장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있었다. 이현희(2007)는 장애인의 자립도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개인별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공간적 대응방법의 다양함을 확인하고 주거공간 독립이 자립생활을 완성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주영(2015)은 저소득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필요하고, 또한 대여를 하는 데 한도, 조건, 절차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장애인 탈시설 과정과 자립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1인 장애인 가구의 자립생활의 일부를 다루었을 뿐,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1인가구로 독립하는 재가 장애인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거주시설 생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탈

시설 자립 시 필요한 지원에 초점을 두거나, 독거 장애인의 생활만족, 우울감처럼 제한적인 주제에 한정된 연구들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또한 1인가구 증가라는 인구사회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1인가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현상에 장애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1인가구의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서 1인가구의 생활이 2년 이상이며, 현재도 1인가구를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이다. 참여

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장애인 단체에 의뢰하여 연구 참가자를 소개받았으며, 참여 희망자는 연구자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받은 뒤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거주 시설에서 살아 본 경험은 없는 재가장애인이다. 장애인 1인가구라고 할지라도 장애유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장애인을 연구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1인가구화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9인에는 지체장애인 3명, 뇌병변장애인 3명, 시각장애인 2명, 청각장애인 1명 등 총 4가지 유형의 장애인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자 6명, 여자 3명으로, 연령별로는 30대 4명, 40대 4명, 50대 1명으로, 장애 정도로는 중증장애인 7명, 경증장애인이 2명으로 구분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구분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	1인가구 기간
참여자1	청각장애	경증	남자	30대	10년 이상
참여자2	뇌병변장애	경증	남자	30대	10년 이상
참여자3	지체장애	중증	남자	50대	10년 이상
참여자4	지체장애	중증	남자	40대	10년 미만
참여자5	시각장애	중증	남자	30대	10년 이상
참여자6	뇌병변장애	중증	남자	40대	10년 미만
참여자7	뇌병변장애	중증	여자	40대	10년 이상
참여자8	시각장애	중증	여자	30대	10년 미만
참여자9	지체장애	중증	여자	40대	10년 미만

##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직접 만나 1:1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한 명당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질문과 응답에 따른 추가질문을 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 인터뷰는 2020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하나 질문을 하고 참여자가 답변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연구자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로서 라포를 형성하는 데 용이한 점이 있었다. 1인가구가 된 배경에 관한 질문 등 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은 당사자가 불편한 경우 일부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불편하다면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성은 1인가구가 된 동기와 과정에 관한 질문, 현 상황에 한 질문, 복지지원에 관한 질문,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 3.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진행 당시 의무규정이 아닌 관계로 IRB 승인은 받지 못하였지만, 이에 준하는 윤리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주제 개념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 학술지 연구물을 참고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기록의 목적을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며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기간 연구자료는 지정된 컴퓨터 이외에서 열람되지 않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 대신 참가자 번호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분석과정에 박사과정생 2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분석된 최종 결과물을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잘못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받았다.

〈표 2〉 연구 질문내용

- 
- 동기와 과정
    - 1인가구가 된 동기와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 거주지는 어떻게 마련했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 현재 상황
    -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1인가구 생활에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1인가구 이후 여가활동 혹은 대인관계가 변하였나요?
  - 복지 욕구 및 지원
    - 1인가구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과 장애로 인해 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1인가구를 계속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 

##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Connelly and Clandinin(2000)의 주제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제분석은 무정형의 질적 자료를 질서 짓는 과정에서 현상 혹은 경험 속에 들어가 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주제어 분석은 서술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며, 해석의 개입 없이 행위 장면들의 시퀀스를 묘사하려는 연구와도 구별된다(김인숙, 2016). 서술을 목적으로 한 질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로부터 현상의 구조, 과정, 유형, 기제 등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재개념화한다(Hammersely, 2008).

장애인 1인가구의 형성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질적연구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기본적인 논의 주제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주요 논제를 파악하기에는 주제어 분석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뷰로 얻은 녹취 한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연구 주제와 목적, 연구문제를 한정하였다. 이후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였으며, 관련 주제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각 사례 간 공통적인 내용이나 단어를 찾고,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한 뒤 인터뷰 내용을 주제와 의미로 묶어 범주화했으며, 속성에 따라 상위·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연구자가 함께 인터뷰 녹음파일과 전사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다.

## IV. 연구결과

이 연구결과를 4가지 상위범주로 구분하였다. ‘1인가구를 선택한 이유’,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복지지원 욕구’, ‘삶에 대한 만족’이었으며, 상위범주에 따라 ‘취업과 진학을 위한 선택’, ‘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부족’,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구하기 힘든 주거지’, ‘접근성 보장이 안됨’, ‘생활고를 겪음’,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불안한 생활’,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장애와 1인가구 특성에 대한 지원’, ‘자유로운 삶’, ‘1인가구유지 희망’의 12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12개의 하위범주에 대해 그 속성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 1. 1인가구를 선택한 이유

#### 1) 취업과 진학을 위한 선택

장애인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비장애 인처럼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사회진출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선택은 주로 청각과 시각장애인에게 나타났다.

“집은 지방이나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기에  
기숙사-고시원-원룸 형태로 전전하였습니  
다.” (참여자1)

“독립생활하게 된 건 교사가 되고 나서 4년  
후에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집이 서울  
이기도 했고 대학원도 서울이었으나 오가는



시간이 길어서 대학원 기숙사에 기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원 졸업 후 집밖에 나와서 사니까 편해서 회기역 근처였는데 지인들도 많이 살기도 하고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겠다 해서 대학원 졸업 후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3)

## 2) 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부족

참여자 중에는 가족과의 갈등이 계기가 된 예도 있었다. 본인의 장애특성을 이해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화, 갈등이 빈번하거나 혹은 이로 인한 더 큰 가족갈등을 미리 예방하고자 스스로 1인가구를 선택한 것이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는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필요한 가족이 오히려 장애를 이해하지 못해 1인가구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가족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제 장애를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해 함께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참여자1)

“1인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가족관계가 좀 안 좋은 것이 있었고, (중략) 자립해야 될 나이고, 돈이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때 가장 컸던 건 가족 문제였죠. 막 그렇다고 풍비박산난 가정은 아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 제가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참여자2)

“원래 부모님과 오빠랑 올케언니랑 같이 살면서 올케언니와 갈등이 있었고 혼자 자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8)

〈표 3〉 분석결과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속성
1인가구를 선택한 이유	취업과 진학을 위한 선택	대학으로 진학과 취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1인가구가 형성됨
	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부족	장애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 본인의 장애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심해짐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부모로부터 돌봄이 어려워짐 복지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독립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구하기 힘든 주거지	집주인의 장애인자립생활 인식 부족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너무 힘들
	접근성 보장이 안 됨	장애를 고려한 접근성이 잘되어 있는 집이 없음
	생활고를 겪음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간신히 생활을 유지함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1인가구 지원 등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음
복지지원욕구	불안한 생활	긴급상황 발생 시 불안함을 겪고 있음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재난, 재해, 응급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한 지원
삶에 대한 만족	장애와 1인가구 특성에 대한 지원	장애와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삶으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이 활발해짐
	1인가구 유지 희망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1인가구 생활 유지할 것임

### 3)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장애인 1인가구 형성 시 비장애인 1인가구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본인의 장애를 더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1인가구를 선택하게 된 경우이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이 장애로 인한 불편한 점을 지원해주었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여 더 지원해주기 힘든 상황이 발생해 떨어져 살게 된 경우가 있었다. 현재 40대가 넘어가는 장애인 중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이러한 상황으로 1인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와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후 어머님께 독립해야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6)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면 저의 아버지는 심장장애 2급이셔서 혈관이 터질 수 있다고 그래요. 저를 도와주시기 힘들고 어머니도 연세도 많으시고 허리 수술을 한 경력이 있어서 저를 도와주시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연세도 있으시고 아버지 몸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참여자3)

한편, 우리나라의 현 장애인복지제도도 장애인이 1인가구를 선택하게끔 부추기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활동지원제도는 독거 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구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시간을 더 받으려면 부모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독립하여 1인가구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제도도 부양의무제 때문에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유리하게 되어있다.

“제가 장애인이 된 후 거의 9년간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한 달에 180시간밖에 활동보조 시간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중증장애여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자립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건이, 활동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자립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6년도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여자3)

## 2.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 1) 구하기 힘든 주거지

1인가구를 선택한 장애인이 공통으로 겪었던 어려움은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 마련은 경제적 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였고, 본인이 살고 싶은 거주지의 조건과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발생하는 차이 때문에 살고 싶은 거주지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비장애인 가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애인의 특수상황으로만 보기는 힘든 부분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상황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장애인에게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 문제였다. 장애인을 혼자서 살기 힘든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큰 장벽

이었는데, 약 20년 전부터 1인가구로 사는 참여자는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특히 중증 장애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장애인이라서 혼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는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었다. 집주인의 반대, 관리인의 눈치 보기 같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장애인들은 홀로 1인가구로 독립하여 살아가고자 집을 구하려 할 때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은 장애 정도에 따라 더욱 극명하게 달리 나타났다.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일수록, 타인이 보기에 바로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수록 더 많이 겪고 있었다.

*“제일 처음 반지하를 얻었는데 장애인이라 집주인이 싫어했습니다.” (참여자6)*

*“아니요. 세 번째 만에 됐어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 같은 장애인은 임대아파트 해주면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런 식이었어요.” (참여자7)*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관리인이 싫다는 경우도 있단는지” (참여자8)*

## 2) 접근성 보장이 안 됨

장애인 1인가구는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다. 바로 접근성의 보장문제였다. 거주지에서 필요한 접근성 문제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주로 물리적 접근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4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적장애인데, 휠체어가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집구조 문제로 본인이 사는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6은 뇌병변장애인으로 이동상 패 제약이 있는데, 출입구 쪽에 계단이 있는 반지하 구조로 되어있는 거주지에 살고 있어서 혼자서는 출입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집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상황과 집주인의 제약 동의를 가능한 주거지였기에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은 집안에서 활동할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였다.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은 실내 공간이 좁은 원룸 같은 주거형태일 경우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집안에서 거의 이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다 물을 받아서 씻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큰데 개선되거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있어요.” (참여자4)*

*“술직히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선생님이 반지하 내려갈 때마다 부축해서 내려갔습니다.” (참여자6)*

또한, 시각장애인은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정보 통신 접근성이 지역 내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 최근 지어진 주택은 출입문이 자동화가 되어있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출입문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 특성상 터치스크린의 접근이 어려워 오히려 최근에 지어진 주택보다는 예전에 지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집을) 구하는 데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을 봤었어야 했어요. 혹시 출입문이 터치스크린으로 되었나? 그런 것들로 많이 되어 있다면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예전 것으로 되어져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돌아가기도 했지요.” (참여자8)*

한편, 장애인의 지역에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동지원제도가 있었고 연구참여자들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 내 활동이 가능한 공간상 장벽이 해소되고 전동휠체어로 가정 내에서 이동할 수 있으면 상당 부분 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현재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대신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접근성의 문제를 활동지원사가 해소하고 있는 것이었다.

*“장애인은 1인가구지만 1인가구가 아니에요. 저같이 중증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은 접근이 안 돼*

*요 좁아서요. 저 같은 장애인이 자립생활 편하게 하려면 18평이나 20평 정도 지어야 해요.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전동이 아니라서 선생님을 불러야 하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딴 일 하고 계세요. 그럴 때 제가 부르면 오기야 오지요. 제 마음대로 ‘이거 해주세요’ 못하니까 이거 타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리 집을 개조해도 이거 들어갈 공간이 안돼요.” (참여자7)*

### 3) 생활고를 겪음

장애인 1인가구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1인가구는 들어가는 생활비를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1인가구는 장애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그래도 취업을 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장애인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약간의 문화생활이 가능했지만,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장애인은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 외식 같은 여유 있는 생활은 포기하면서 살고 있었다.

*“딱히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서 프리랜서로서 대본 제작 및 농학생 대상 개인과외지도 형태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1)*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또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 활동가도 하고 있고 강의 나가서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여유가 안 되지만 벌어서 하기도 하고, 더 부족하면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4)

“아무래도 교사라 수입이 안정되고 월 250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돈으로도 전세금 마련이 힘든데, 지금 학교 출근할 때 택시를 타고 있는데 바우처 콜택시이긴 한데, 이동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혼자 살다보니 이런저런 돈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참여자5)

“기초생활수급비하고 장애인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모자란 건 가정사실이었고요.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문화생활, 외식생활 하나도 못해요.” (참여자7)

#### 4)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장애인 1인가구는 오히려 현재 사회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다. 특히 1인가구 지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 거주기간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도 있었다.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을 받았지만, 1인가구라고 해서 특별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여자1)

“주거복지제도가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안 해주면... 네. 그리고 그것도 나이 때문에 안돼요. 36세까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제 청년주택 담보대출을 어느 해에는 35세 이하 이렇게 나와요.” (참여자2)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이나 여성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접하려고 하다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아 좋다, 저 서비스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제가 서울에 와서 산 지 1년이 안 되었거든요. 주거기간의 어떤 제한 조건... (중략) ...서울시에서. 저는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서 청년은 못하고 사업대상을 봤을 때,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쪽에 배당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배당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거주한 지 이제 갓 6개월 됐어요. 거주 기한도 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하반기 정도에 신청을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참여자3)

#### 5) 불안한 생활

1인가구의 생활은 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재난·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와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와 같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확인됐다.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가족이었고, 결국 도와준 사람도 가족이었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 가운데 독립했음에도 결국에는 지역 내 최후의 안정망은 복지제공체계보다는 가족이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와 관련하여 혼자 독립 가구를 유지하는 상황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위기 응급 상황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1인가구는 취약하기도 하고 불안수준도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년 전에 새벽에 배가 아팠는데 마침 집에 어머니께서 계셔서 병원을 갔는데 땀이 터져서 새벽에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여자6)

“얼마 전에 감기 때문에 아팠었는데 그 당시 활동지원인도 지원을 주기 힘든 밤이었고 열이 계속 나서 아팠는데 119를 부르는 과하고 집 근처 병원위치를 몰라서 멀리 살고 계시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와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긴급상황에서 병원이나 근처 응급실 정도는 제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도 장애인이 있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5)

“제가 시각장애와 여성이란 특성이 있다 보니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상황이 있으면 문을 안 열어주고 모른척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참여자8)

### 3. 복지지원 욕구

#### 1) 긴급상황 지원

장애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나타났다.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은 소득, 안전, 의료 등 여러 방면에서 더욱 취약하고 그러하기에 마땅히 지원을 잘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1인가구로 살아가는 장애인이 체감하는 지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긴급상황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 및 안전한 이송체계를 요청했으며, 의료적인 응급상황 시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고려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수어통역사 참여 등 필요하겠고요.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다면 의사소통 지원체계와 더불어 신속한 출동 및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안전하고도 완벽한 이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1)

#### 2) 장애와 1인가구 특성이 반영된 지원

장애인 1인가구는 장애에 따른 특성과 1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체계는 장애인 지원과 1인가구 지원이 분리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는 1인가구, 특히 장애인 1인가구에 대

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보니 의료적인 부분의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의료적인 부분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상상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격리조치를 취해서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긴급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에, 뭐 연구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참여자3)

“그럼요. 필요하지요.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기초, 차상위 계층이 아닌 장애인도 어려움이 있어요. (중략) 집값이 너무 비싼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없어요. 장애인은 (자립 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략) 활동보조 서비스 본인부담이 되는데 지금 33만 원 부담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가격이 인하되면 좋겠어요.” (참여자4)

#### 4. 삶에 대한 만족

##### 1) 자유로운 삶

많은 어려움과 장벽이 있는데도 장애인 1인가

구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이는 그동안 장애로 제한당하고 포기해야만 했던 억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했던 외출이 자유로워졌으며, 동호회 활동이나 친목 모임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주체적이고 원하는 본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독립생활 이후 훨씬 더 대인관계와 활동이 활발해졌지요.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함께 나가셔야 하니까 안 나가게 되었는데 자립생활하게 되면서 활동보조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활동 편하게 할 수 있지요.” (참여자4)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사적인 친목 모임은 월 1~2회에서 주 1~2회로 늘어나게 되고 자기 계발이나 취미활동도 늘어났습니다. 자기 계발 취미활동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교사들과 네트워킹 모임을 한 달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5)

“장점은 가족들과 같이 살면 장애에 대해 가족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맞춰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맞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지만.” (참여자8)

##### 2) 1인 가구 유지 희망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 집에서 생활의 어려움 등 장애인 1인가구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난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다수가 앞으로도 1인가구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그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잔소리하는 집안이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와 함께 비비기보다는 독립생활하면서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참여자1)*

*“앞으로도 독립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나이가 차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랬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5)*

*“집만 해결되면 계속 혼자 살고 싶어요.” (참여자9)*

## V. 논의와 결론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1인가구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이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 밝혀내기 위해 총 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장애인 1인가구는 다른 비장애인처럼 취업이나 진학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례도 있었지만, 장애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 부모님의 고령화로 돌봄 상황이 변하면서 1인가구 선택, 즉 주변 상황에 따라서 비자

발적인 1인가구가 형성된 경우가 있었다. 둘째, 이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거주지 선택부터 경제력 부족, 주변인의 반대, 집 내부의 접근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부재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주택 지원, 1인가구 지원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장애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특성에 반영된 지원방안 마련, 장애특성에 따른 주거공간 제공 등 장애인 1인가구 특성이 반영된 제도 등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독립적인 생활에 따른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생활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대인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1인가구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장애인 1인가구 연구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 장민선(2015b)은 여성 1인가구가 낮은 사회참여율, 높은 질병률, 우울도를 보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참여 활동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혜진(2018)도 청년 1인가구의 삶이 혼자 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가고 있어 여성과 청년의 1인가구는 홀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1인가구는 1인가구의 삶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인식과 물적 환경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더 많이 해나가고 있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 등 사회복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1인가구의 가장 큰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억압적인 생활을 하였지만, 1인가구 형성으로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결정에 따른 주체적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과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가족과는 별개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면서 더욱 활동적인 사회 참여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비장애인 1인가구의 특성으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고령화, 여성화, 빈곤화 문제 중 빈곤화 문제는 장애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시설 장애인과 달리 탈가족 형태로 가족과의 갈등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으로 1인가구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탈시설 장애인은 주거 지원이나 자립지원 시 복지지원의 체계 속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알아서 주거지를 구하는 문제나 집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망을 형성하고 하는 데 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세상과 마주한다는 측면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경험하는 타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성의 문제는 탈시설 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집을 개조할 수 없다든지 하는 등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감내하고 참으면서 살고 있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식적 장벽을 경험하면서도, 장애인 1인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도적 차원과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첫째, 장애인 1인가구 대상 제도적 지원은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인가구 주거지원책을 장애통합적 1인가구 주거지원책으로 변경해야 한다. 비장애인 1인가구는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빈번하게 거주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의 안정과 편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장민선, 2015a), 장애인 1인가구도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거주지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내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형태는 원룸, 오피스텔 혹은 비어 있는 기존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주거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앞으로 장애인은 1인가구의 특성과 함께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주택 등 복지서비스와 주거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더욱 장애인 접근성과 활동성이 보장되는 주거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1인가구의 주거공간은 7~8평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적어도 16평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즉, 1인가구 주거 지원 정책 속에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규모, 화장실, 출입구 등의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정책이 최근 지역사회와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살다가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다수의 자립지원책이 시설 거주 장애인

의 지역사회통합과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한 부분과 연동되어 있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인정된다. 하지만 다수의 장애인이 재가장애인이고, 성인기 자립을 계획하거나 탈가족을 꿈꾸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적 제약에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이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립지원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도 포함하여 주거 및 복지지원을 통한 탈가족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자립생활초기 필요한 비품,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한계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제공되고 있지만, 탈시설 전환과정에 제공되는 장애인 자립주택이나 지원주택은 시설거주장애인이 우선 대상이 된다. 또한 LH 또는 SH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또한 단독 세대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여야만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자립계획이 있는 성인 재가장애인 1인가구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자가로 준비할 경제적 여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겠지만, 가족과 같이 살아왔다는 이유에서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상 차별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기존 재가장애인 대상 주택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1인가구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택지원 강화 계획을 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약자

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공급 등의 계획이 있지만, 이러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한다. 즉, 장애인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려운 과정 끝에 가족에게서 독립한 장애인 1인가구는 접근성이나 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다.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중 우선 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1인가구 우선 지원을 고려하길 바란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1인가구가 더 이상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1인가구 생활을 하는 데 주거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주택개조 지원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부터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개조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1인가구는 외곽지역보다는 도심지역에 사는 경향이 높다(이경애·조주현, 2013)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장애인 1인가구가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정책은 사실상 체감도가 낮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장애인 주택지원 시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장애인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 맞는 정책도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홍승아(2017)에 따르면, 비장애인 1인가구의 실제 생활비는 평균 97.89만 원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비는 평균 126.28

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가 체감하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보통 이하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과반수(55.5%)가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인 1인가구도 마찬가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가 부양가족에 수에 비례해서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1인가구는 부양가족이 없어 가장 적은 수급비만을 받고 있으며, 직장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정도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넉넉한 편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즉 의료비, 보조 기기구입, 교통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 비용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장애인과 동거하는 장애인은 가구소득으로 추가비용이 상쇄될수 있지만 1인 장애인가구는 그렇지 않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장애추가비용은 16만 5천 원이며, 최대 60만 8천 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1인가구는 기본 생활비와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지출은 더욱 많아지며, 노후 보장과 같은 저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개선과 현재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긴급상황에 따른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안전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김선미, 2019)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의식 수준이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장애인 1인가구는 삶의 만족도는 높지만, 재난·재해 같은 긴급상황 시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과 진료에 많은 어

려움이 있어 장애인 1인가구가 안전한 지역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상황 지역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유형별 긴급구조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 2. 장애인식개선

첫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 동정과 시혜,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집주인의 거부, 관리인의 눈치 보기와 같은 장애인 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으로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도 거주시설지원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장애인 1인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 1인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인식개선을 위해서 사업체와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1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교양교육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인식보다도 장애인의 삶에 영향이 큰 것은 장애인 가족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하겠다. 자립하여 1인가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가족과의 관계 불화나 갈등이 독립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복지서비스가 독거장애인에게 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이용을 통해 1

인가구로의 자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의 삶의 기회와 경험의 확장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대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교육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장애인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가족은 결국 지역에서 홀로 사는 장애인에게는 최후의 안전망이 되고 있기도 했다.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삶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조력자로서 가족의 역할은 국가의 장애인 자립지원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역할일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가족의 역할이 함께 살면서 장애인의 생활을 오히려 제약하고 보호와 돌봄 제공자로서 부담을 갖는 형태가 아닌, 따로 살면서 지지와 조력을 제공하고 장애인은 독립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가족 역할에 대한 재구성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 연구가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여, 장애인복지법의 15가지 장애 유형 중 4가지 장애유형만이 참여하였다. 특히 발달, 자폐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인은 연구참여자의 모집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서울 지역에 살고 있어 연구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1인가구 연구가 그동안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1인가구 형성과정과 어떤 사회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 처음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현욱, 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김경미, 2009, “자립생활 체험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경험과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1: 151~182.
- 김선미, 2019, “1인가구의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3): 615~628.
- 김유진, 2018,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를 통해 살펴본 ‘숨겨진 이웃’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8(4): 1149~1171.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성희·이연희·오옥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행신·이영호, 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4(8): 59~67.
- 김현진·김학민·안옥희, 2000, “단독가구 고령자가 거주하는 독립주택의 주거환경 실측”,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 91~95.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保健社會研究」, 38(2): 71~102.

- 박주영·오혜경, 2013, “독거가구 고령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2: 109~128.
- 박주영, 2015,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691~704.
- 박주영, 2018, “고령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72~280
- 변미리·신상영·조권중,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종녀, 2014,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 777~792.
- 이경애·조주현, 2013, “서울시 1인가구의 거주지 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 도시연구」, 6(1): 23~50.
- 이선형·배희숙, 2016, “감각자극 기반 표현예술치료가 독거 재가장애인의 우울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6(2): 258~279.
- 이성은·박홍주·유정민, 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수립” 「서울: 여성가족재단」.
- 이여봉, 2017,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 64~77.
- 이현희, 2007, “휠체어 사용 중증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개조 사례 연구”, 「재활복지」, 11(3): 96~119.
- 장민선, 2015a,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적정책적 지원 방향”, 「젠더리뷰」, 42: 22~28.
- 장민선, 2015b,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 「이화젠더법학」, 7(2): 1~32.
- 장연식, 2019, “독거장애노인의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죽음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4(1): 171~196.
- 전지수·김윤태, 201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육아특수교육연구」, 16(2): 161~174.
- 유진성, 2020. “1인 가구 증가 시 소득불평등 빈곤율 약화 우려”, 「한국경제연구원」.
- 홍승아, 2017,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확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onnelly, M., Clandinin, D. J.,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ammersley, M., 2008, Questioning Qualitative Inquiry: Critical Essays. Los Angeles, London, New Delhi, Singapore: Sage Pub.
- 통계청 (2020) “1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vw\\_cd=MT\\_GTITLE01&list\\_id=1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vw_cd=MT_GTITLE01&list_id=1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 통계청 통계용어조회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094376945>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10월 25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21년 11월 12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21년 11월 16일